

일하다 잇단 참변... 목숨 위협하는 근로환경

리뷰 2017 그 사건

<5> 비랑 끝 근로자들

올해 광주에서는 근무 중 다리를 다친 집배원이 업무 중압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시간에 쫓겨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2명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광주시 등은 근무자들의 안전 대책안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근로 개선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지난 9월5일 오후 5시께 서광주우체국 소속 고(故) 이길연(55)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이씨가 남긴 유서를 통해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1일 서광주우체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서광주우체국 집배노동자 자살 사건 법률지원단은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자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10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3주간 병가를 냈다.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였다. 1000일 무사고운동을 펼치던 우체국측이 목표달성을 위해 공무상 병가 사용을 억제시켰다는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이씨의 자살 원인으로 팀원이 쉬면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가 분배되는 ‘겸배’를 꼽았다.

실제 고인이 자살하기 직전 우체국 CC(폐쇄회로)-TV에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씨는 병가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 배달 중 다리 다친 집배원 출근 압박 비판해 자살 폐기물 치우던 미화원, 후진하던 쓰레기수거차에 치어

고 우체국측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출근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적절한 인력충원이 가장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고 대책안 발표 하루 만에 참사=지난 11월16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 주변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모(59)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수거차) 뒤범퍼 쪽에 올라탄 채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하던 수거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곳곳에서 새벽 일을 줄이는 등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

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광주시는 합동간담회를 지난달 28일 작업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발표 하루만에 미화원 사망 사고가 또 발생, 공염불(空念佛)에 그쳤다. 지난달 29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 안에서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노모(57)씨가 쓰레기수거차 적재함을 청소하던 중 화물칸 덮개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것이다.

당당 차량에는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에 차량 뒷면을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덮개에 달려 있어 덮개를 열면 후방 카메라는

뒷면이 아닌 하늘을 촬영하게 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광주시는 지난 5일 후방카메라 사각지대 해소 등 후속대책을 또다시 마련했다. 20일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환경미화업체를 방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김 장관은 광주시 남구 신공산업(주)을 방문해 환경미화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편지와 정부 연말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직접 쓰레기수거차량을 살펴보는 등 현장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직접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며 약속했다.

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이번에도야말로 타당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올해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잇따라 숨지며 근로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광주시 남구 환경미화업체를 방문해 미화원들을 격려하고 쓰레기 수거차량 등을 살펴기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26
 일출 12:01 일몰 23:47

포근한 성탄절
 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바람이 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0/5	보성	맑음	-4/7
목포	구름 많음	1/4	순천	맑음	-1/5
여수	맑음	0/5	영광	맑음	-1/3
나주	맑음	-1/5	진도	구름 많음	2/4
완도	맑음	2/5	진주	맑음	-3/4
구례	맑음	-3/4	군산	맑음	-2/3
강진	맑음	1/5	남원	맑음	-4/3
해남	구름 많음	0/4	축산도	구름 많음	2/5
장성	맑음	-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4.0	서~북서	1.0~2.5
남부	면바다	북서~북	2.0~4.0	서~북서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0.5~1.0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1.0~2.5
	면바다(서)	북서~북	3.0~5.0	북서~북	2.0~4.0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23	06:07
		--:--	18:39
여수		06:48	06:48
		19:51	19:51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1/1(월)
☀	☀	☀	☀	☀	☀	☀
-1/7	-5/3	-4/6	-2/8	-2/8	0/6	-1/6

올해도 눈 없는 크리스마스

이번주 큰 추위 없어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광주·전남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주말인 31일까지 평년 최저기온인 영하 4.1~영상 1도, 최고기온은 6~9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성탄절에도 눈이 내리지 않으면 이번 성탄절에도 눈이 내리지 않으면

광주는 2012년 이후 5년 연속 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다.

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의 최저기온을 영하 3도~영상 2도, 최고기온은 3도~6도의 분포로 예상했다. 26일에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주말인 31일까지 평년 최저기온인 영하 4.1~영상 1도, 최고기온은 6~9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영기자 young@

광주 동부서장 김재석·여수서장 김상철

총경급 443명 전보인사

경찰청은 26일자로 광주 동부경찰서장에 김재석 광주청 경무과(교육)를, 여수서장에 김상철 광주청 경무과(교육)를 전보하는 등 총경급 443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홍보담당관(직무대리)에 이진수 서울청 경무과(교육), 경무과 치안지도관에 조영일 교통안전계장, 국승인 강력계장, 차복영 경무계장이 각각 총경으로 승진돼 첫 임무를 맡았다.

또 북부서장에 양우천 광주청 수사과장, 형사과장에 정경태 무안서장, 수사과장에 임광문 북부서장, 경비교통과장

에 정재균 장성서장, 여성청소년과장에 김홍균 순천서장, 112종합상황실장에 김영창 곡성서장, 보안과장에 전준호 전북 정수서장, 정보화장비과장에 장영수 동부서장이 각각 발령됐다.

전남청에서는 조장성 교통안전계장, 임준영 경무계장이 총경으로 승진해 신기선 여수서장과 함께 치안지도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정보화장비과장에 환원배 전북 전주덕진서장, 보안과장에 임성덕 나주서장, 순천서장에 이삼호 전남청 경무과(교육), 나주서장에 박종열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 무안서장에 이윤신 제주청 보안과장, 영광서장에 문병훈 전남청 보안과장 등이 부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I 격무 중 쓰러진 곡성 공무원 숨져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비상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곡성군 권삼주(52) 안전총괄팀장(6급)이 투병 12일 만인 지난 23일 사망했다.

권 팀장은 지난 11일 AI 영상회의를 마친 뒤 혼수상태에 빠져 광주의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권 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안전총괄팀장을 맡아 여름철 물놀이 비상근무, 겨울철 AI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격무를 수행해왔다.

쓰러진 당일에도 전남권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지난 22일 AI 점검차 전남을 찾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권 팀장을 병문안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권 팀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곡성군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장례 준비와 향후 유가족들의 공상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 팀장의 빈소는 곡성군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정계공원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엄동설한에...해남 90대 치매환자 실종

경찰, 목격자 제보 접수

해남군의 농촌 마을에서 홀로 사는 90대 치매 환자가 수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4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주민 김덕례(여·90)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인근 마을에 사는 딸과 전화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하다.

홀몸노인인 김씨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등이 굽었다. 지팡이 두 개에 의지해 걸을

을 옮길 만큼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 150cm가량에 마른 체형이다. 평소 외출할 때 머리카락에 비녀를 꽂는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들이 지난 19일 오후 2시께 김씨 집을 찾아와 3시간 가까이 주변을 둘러봤으나 모친을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서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며 “목격자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국번 없이 112나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061-530-1339)으로 제보하면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기에탁금 → 1년 최고 **2.4%**

정기적금 →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